



3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싱글벙글쇼’

화물차 운전자나 택시 기사들이 낮 시간대 졸음운전을 쫓는 데 겹보다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으는 MBC표준FM (95.9MHz)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

1973년 6월4일 시작돼 1987년부터 강석과 김혜영이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놓지 않고 진행해온 ‘싱글벙글쇼’가 16일로 30주년을 맞았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다.

30년을 개근한 강석과 김혜영은 2005년과 2007년에 각각 MBC 라디오국에서 20년 이상 진행한 DJ에게 주는 골든마우스상을 받기도 했다.

두 DJ는 현존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중 최장수 단일 프로그램 진행자이기도 하다. 종전에 방송(1973~1995년)했던 ‘두시의 데이트’의 김기덕보다 오래됐다.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연주곡이 시그널로 울려 퍼지며 시작하는 ‘싱글벙글쇼’는 시사오락 프로그램의 대표주자로 불린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1969년 교양물을 표방한 가요코미디물로 출발한 ‘유공쇼’가 ‘코끼리쇼’란 이름을 거쳐 1973년부터 ‘싱글벙글쇼’가 됐다. 이때부터 비로소 시사풍토의 색이 났다고 MBC 사자(社史)는 기록한다.

‘싱글벙글쇼’는 강석의 유명한 성대모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패러디 시사풍토가 주 내용을 이루었다.

그동안 ‘88돌도사’, ‘21세기와 현자’, ‘대내토론-전화를 받습니다’, ‘나의 신혼일기’, ‘강동길걸림’, ‘시사스포츠’ 등의 고정 코너들은 힘있는 사람, 소시민이 각자 일상 속의 희로애락을 털어놓는 창구가 됐다.

현재는 ‘정춘신파극 강수일과 김순애’라는 제목의 코너

강석·김혜영 최장수 단일프로 진행 서민들의 희로애락 털어놓는 창구 결혼식날 웨딩드레스 입고 진행도

가 사회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이슈들을 다루며 애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시그널’을 패러디, 베테랑 형사반장으로 변신한 강석과 허당 여형사 김혜영이 과거와 현재의 뉴스를 비교하는 ‘다이얼을 돌려라’도 인기 코너다.

주말에 한 주간 소개되지 못한 청취자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신물을 수시로 증명한다는 점은 이 프로의 또하나 재미다.

이처럼 ‘싱글벙글쇼’는 서민들의 대나무숲이라는 기본 콘셉트는 유지하면서 트렌드의 변화까지 놓치지 않는 노력으로 오랜 기간 사랑받고 있다.

16일 낮 12시 20분부터 상암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특집 공개 생방송 ‘매일매일 싱글벙글’에는 200명의 애청자가 초대된 가운데 가수 노사연, 설운도, 주현미, 장미여관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김흥국과 현숙도 깜짝 등장했다.

이날도 어김없이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리메이크한 시그널이 울려 퍼졌고, DJ 강석은 “처음엔 라디오

가 좋아 시작했는데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애청자들 덕분”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DJ 김혜영은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발걸음 해주셔서 ‘역수로’ 고맙다”고 외치며 분위기를 띄웠다.

첫 게스트 설운도가 ‘보고싶다 내 사랑’, ‘삼바의 여인’, ‘다 함께 차차차’, ‘사랑의 트위스트’ 매들리를 부르자 애청자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두 번째 게스트 노사연은 ‘사랑’과 ‘바람’을 불렀다. 김혜영이 첫째 딸을 낳을 때 보름간 ‘대타’를 맡기도 했던 그는 ‘싱글벙글쇼’의 장수비결 3가지를 소개했다.

노사연은 “결혼식 날에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와서 진행한 김혜영의 놀라운 투혼, 강석의 놀라운 개인기, 청취자들의 놀라운 사랑이 장수비결”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석은 즉석에서 전유성, 김동길 교수, 왕희장 등 성대모사를 했다.

애청자들의 덕담도 이어졌다. 한 청취자는 “‘싱글벙글쇼’를 인생의 절반 동안 들었는데 앞으로 저의 2대, 3대까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싱글벙글쇼’의 로고송을 부른 장미여관은 라이브로 로고송과 ‘봉숙이’를 부르며 등장했다. 이들은 ‘봉숙이’를 ‘혜영이’로 개사해 웃음을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두 DJ는 ‘싱글벙글쇼’를 한마디로 정의해 달라는 요청에 30년의 마음을 담아 답했다. “인생살이의 교과서조”(김혜영), “내 인생입니다”(강석) /연합뉴스

기적의 달리기 “다함께 GO”

EBS 건강프로젝트 22일부터 매주 일요일 방영

16명 출연...7주간 마라톤 10km 코스 도전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현대인을 위한 EBS 건강프로젝트 ‘아! 일요일 기적의 달리기’가 오는 22일 첫 방송된다.

EBS는 이 프로그램에서 16명의 도전자가 7주간의 합속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마라톤 10km 코스에 도전하는 과정을 그린다고 16일 소개했다.

Mnet ‘음악의신’에서 방송인 이상민의 매니저 역할을 맡아 인기를 얻은 개성파 배우 백영광씨도 도전자로 나선다. MC로는 ‘대세 예능인’ 김숙, 방송인 오상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이천수, 인기 걸그룹 I.O.I의 정하가 나선다.

이들은 도전자들과 팀을 이뤄 건강관리법과 체중감량 비법을 공유하고 도전자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도전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팀별로 특색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제안할 ‘건강 어벤저스’도 구성된다. 어벤저스에는 2015년 마슬마니아 세계대회 1위 트레이너 최성욱 사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등이 포함됐다.

프로그램은 6부작이며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매주 일요일 밤 9시 5분에 방송된다. /연합뉴스

2016 올해의 영화 ‘곡성’

영화담당 기자 선정...송강호·손예진 남녀주연상

영화 ‘곡성’이 영화담당 기자들이

선정한 ‘2016 올해의 영화’가 됐다.

‘올해의 영화상’을 주관하는 한국영화기자협회는 지난해 1월 1~12월 31일 개봉한 한국영화와 외화를 대상으로 협회 소속 50개 언론사 기자의 투표를 통해 ‘곡성’을 작품상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감독상도 ‘곡성’의 나훈진 감독이 수상한다. 이로써 ‘곡성’은 작품상과 함께 2관왕이 된다.

‘밀정’의 송강호와 ‘덕혜옹주’의 손예진은 각각 남녀주연상 수상자로 뽑혔다.

남녀조연상은 ‘부산행’의 마동석과 ‘덕혜옹주’의 라미란에게 돌아갔다. 신인남우상과 신인여우상은 ‘4등’의 정가람과 ‘아가씨’의 김태리가 받는다. ‘올해의 독립영화’는 윤가는 감독의 ‘우리들’, ‘올해의 외화’로는 ‘라라랜드’가 선정됐다.

‘아가씨’의 박찬욱 감독은 특별상 부문인 ‘올해의 영화인’으로 뽑혔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중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제나 봄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TV블로그 쏘리라 30 아침 연속극 <아임 쏘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방학특선 배움은 미래다(재) 50 숨터(재)	00 살림하는 남자들 (재)	00 월화드라마 <불아성>(재)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독 30 꾸러기 탐구생활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쏘리라 55 세상발견 유레카 (715회)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00 1대 100	20 문화사색 (재)	55 닥터 365
2	55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내꺼야 폭풍 30 꾸러기 식자교실	00 2시, 뉴스브리핑
3	50 감성애니 하루(재) 55 튜튼생활제조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뚝? 뚝! 키즈스쿨 55 음가 쇼나타 2	00 영재발굴단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쏘리라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 24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신년기획 2부작 -마지막 진화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화랑>	00 월화드라마 <불아성>	00 낭만닥터 김사부 변외편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빌	10 살림하는 남자들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강연 100℃(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멕시코 맛기행 -2부 옥수수의 나라>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이디 비그 07:30 로보가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덩동방 유지원 1~2 08:45 부릉!부릉! 부루미즈 09:00 방귀대장 똥뽕이 09:15 출동! 슈퍼피스 09:30 이입! 스페이스 정글	09:40 부모 <위대한 엄마>(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통삼겹 수육과 오이 파채샐러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재) 12:40 지식체널6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13:35 뷰티풀 코리아 <생명의 침터 순천만> 13:40 줄거은 수학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 2 13:55 캐니멀	14:25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 래빗 15:20 우주탐험가 켓 15:35 요술 상자2 15:45 코코몽 3 16:15 방귀대장 똥뽕이(재) 16:30 부릉부릉 부루미즈(재) 16:45 덩동방 유지원 1~2(재) 17:30 로보가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4 19:00 소피 루비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큐 오늘 <몽골 수의사 가족> 20:50 세계테마기행 <태양의 나라 속세의 땅, 페루 2부 잉카의 고향, 티티카카> 21:30 한국기행 <겨울에는 무작정 2부 형제여 산이 부른다> 21:50 EBS 다큐프라임 <진화의 신비, 독> 22:45 리얼극장-행복 23:35 미스터리 휴먼 다큐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知天命이 오는 오늘의 운세			
子	48년생 처음에 마음먹었던 대로 행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60년생 소집합에 불착할 수 있다. 72년생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규모와 부가적 이익이 달라지겠다. 84년생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익 알고도 남음이 있겠다. 행운의 숫자 : 86, 20	午	42년생 가벼운 언행이 시비로 비화될 수도 있다. 54년생 극진한 정성으로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66년생 분명히 하라. 78년생 불완전한 부분이 보이거든 충분히 보완해 줘야 하겠다. 90년생 인내심을 발휘했을 때 성과를 거둔다. 행운의 숫자 : 64, 08
丑	49년생 일회일비가 수시로 교차하는 국면이다. 61년생 드러나지 않은 결립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뤄야겠다. 73년생 아무리 마음이 앞서더라도 순서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85년생 지혜보다 직감이 더 맞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43, 10	未	43년생 끌리더라도 절제되지 않으면 손해가 커진다. 55년생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겠다. 67년생 대체할 형편에 놓인다. 79년생 상대적임을 알라. 91년생 속마음을 이해해 풀만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9, 54
寅	50년생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62년생 흔들리지 말고 강한 집념으로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 74년생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다. 86년생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은 특별하도다. 행운의 숫자 : 50, 77	申	44년생 되로를 열어 놓고 이행하자. 56년생 오랫동안 소원해 왔던 버를 이룰 수 있다. 68년생 내버려 둔다면 급속히 냉각되어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 80년생 다름을 알면서도 화목할 수 있는 처세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16, 93
卯	51년생 기세가 등등하니 웬만해서는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겠다. 63년생 편이한 사정의 변화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75년생 하던 일을 중단시킬만한 이변이 발생한다. 87년생 얻힌 것이 있다면 반드시 풀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81, 91	酉	45년생 그대로 놔둔다면 매우 후회할 것이다. 57년생 일부만 본다면 착각할 수다. 69년생 합리성과 능률적인 면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81년생 정곡을 제대로 찌르지 않으면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84, 95
辰	52년생 상호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자. 64년생 오늘 당장 해결할 필요까지는 없으니 조금씩 서두르지 말라. 76년생 평온한 가운데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다. 88년생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85, 28	戌	46년생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는 마당이다. 58년생 모습은 철저히 배제하자. 70년생 사소함에 얽매이지 말고 대의를 따르라. 82년생 일단, 최선을 다 한 다음에 논 의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26, 38
巳	53년생 튀어나오려고 해도 꼭 잡고 있는 것이 옳다. 65년생 부수적인 일은 보류해도 된다. 77년생 의심의 여지가 없겠다. 89년생 주변의 개별적 의사를 전혀 의식할 필요 없으니 쫓대를 갖고 밀어 붙여라. 행운의 숫자 : 04, 44	亥	47년생 처음에는 부담스럽더라도 차차 적응하게 되리라. 59년생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심정을 이해해 주는 이가 그 어디에 있었는가? 71년생 긴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겹쳐서 번거롭겠다. 83년생 확실하게 알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83, 8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